**민1916 Note**

**◆ 회칠한 무덤**

민1916. 그리고 광활한 들에서 검으로써 죽임을 당한 자나, 죽은 시신이나, 사람의 뼈나, 무덤(케베르:무덤,매장하는 곳,바위를 뚫거나 돌로된 무덤)을 만지는 누구든지 칠일간 불결하니라,

죄의 결과인 죽음과 연관된 그 무엇에나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면치 못했다.

특히 여기서 '무덤'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면지 못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,

가나안 정착 이후 유대인들은 무덤에 흰 회칠을 함으로써 부정을 모면케 하는 관례가 생기게 되었다.